

# “비용 싸고, 장벽 낮고”... 中企 전용 T커머스 도입 목소리 ↑

**유통학회, 중소기업인 판로 포럼**  
이호택 “디지털 판로 자생력 확보  
혼합 수수료 등으로 中企 부담 완화”  
김기문 “T커머스로 판매기회 확대”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T커머스’로도 불리는 전용 데이터 흡소핑 채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난 2월 말 열린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T커머스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TV흡소핑인 홈앤쇼핑 대주주로, 32.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제안’이란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계명대 이호택 교수는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의 가장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기 때



한국유통학회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판로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왼쪽 6번째부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경도 한국유통학회장,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

문에 판로 지원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최근 티메프·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유통 환경이 불안정해진 만큼 데이터흡소핑 채널을 도입해 중소기업에게 신뢰도 높은 디지털 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T커머스는 TV흡소핑 겸업사업자인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5곳, 단독사업자인 KTH, 소핑엔터, 신세계티비쇼

핑, SK스토아, 더블유쇼핑 5곳이 각각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7개 TV흡소핑 사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판로를 지향하는 홈앤쇼핑과 중소기업, 농축수산물 전용인 공영홈쇼핑만 T커머스 채널이 없다.

이호택 교수는 “2012년 시작한 T커머스 사업은 2023년 기준으로 T커머스 단독사업자 매출만 놓고 보면 약 1조16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13% 이상 고속성장해왔다. 이는 TV흡소핑 7개

업체 매출의 20.4% 수준으로 5년전의 12.7%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TV흡소핑과 T커머스 판매수수료는 대기업 제품보다 중소기업 제품에 10% 이상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줄여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판매수수료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합친 합리적 혼합수수료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방송은 방송 이후엔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의 과금 방식 중 하나인 검색어 상위노출에 따른 광고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선 비교적 저렴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고, 광고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의 과금체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 T커머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7.1%로 ‘그렇지 않다’(12.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존 T커머스 대비 판매수수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였다.

김기문 회장은 “2012년에 개국한 홈앤쇼핑도 취급액이 2조원에 달하고, 수수료는 대기업 홈쇼핑보다 10% 이상 낮아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T커머스 채널까지 확보하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與, 중견련 찾아... “野 상법 개정안은 기업 부담”

**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與, 상속세 개편 침묵 비판  
기업 경쟁력 강화엔 역행  
“해지펀드 먹잇감 우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은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당 사무총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성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중견기업 측에선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이세용 이랜텍 회장, 박진선 샘표 식품 사장, 박일동 디섹 회장,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송시한 와이지-원 대표이사, 박진균 선익시스템 부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이사의 총실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기

업을 해지펀드와 투기자본에 먹잇감으로 주는 것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의회 다수당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경제와 기업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와 기업의 활력 모두 잃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오히려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도록 발판과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기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에서 ‘가업’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기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미국, 일본, 유럽처럼 100~200년, 3~4대가 아니라 10~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 환경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민의힘에 “여야의 나름대로 경쟁과 토론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아주고 상법 개정안도 막아주는 것이 더 (기업이) 남더라도 떨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 케어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신세계백화점 부산센텀시티점에 있는 마테라소 매장.

**신세계가사**  
수면시장 공략 박차  
‘마테라소’ 매장 30곳 추가

신세계가사가 매트리스 브랜드 ‘마테라소’를 더욱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8곳인 마테라소 전문매장을 올해 30여개 추가 오픈한다.

이를 통해 제품 라인업과 카테고리 를 대거 확장한다.

25일 신세계가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23년 7월 매트리스 시리즈였던 ‘마테라소’를 수면 전문 브랜드로 확장 개편했다.

마테라소 제품만을 전시·판매하는 전문 매장을 지난해 본격 출점해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총 8개를 운영 중이다.

신세계가사는 이달 말까지 마테라소의 서울·부산 대표 전문 매장 오픈 1주년 기념 특별 행사도 펼친다.

서울엔 신세계강남점, 부산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각각 자리를 잡고 있다.

신세계가사는 행사 기간 프리미엄 매트리스 마테라소 포레스트 컬렉션의 대표 모델인 클라우드H와 베이를 회원 등급에 따라 최대 20% 할인한다.

마테라소 포레스트 컬렉션 매트리스 구매 고객이 까사미아의 가구를 합산 700만원 이상 추가 구매 시 인기 드레스룸 가구 레토 시리즈의 서랍장을 선물로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 “실용성부터 미니 감성까지 짝 채웠다”

**미니코리아 ‘뉴 쿠퍼 C5-도어’ 선포**

미니코리아가 ‘뉴 미니 쿠퍼 C5-도어’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니 쿠퍼 C5-도어는 3-도어 모델 대비 70mm 긴 휠베이스를 갖춰 한층 넓은 실내 공간과 향상된 2열 편의성과 기본 275ℓ에서 최대 925ℓ까지 확장되는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뉴 미니 쿠퍼 C5-도어는 공간적인 혜택 및 향상된 편의성과 편의사양을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에센셜’과 ‘클래식’ 두 가지 트림으로 선보여 고객 선택지를 확장했다.

뉴 미니 쿠퍼 C5-도어 에센셜 트림

은 미니의 헤리티지가 담긴 참신한 디자인과 핵심 기능 및 사양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기본형 모델이다. 외관은 지붕과 사이드미러 캡을 차체 색상으로 마감해 통일감을 줬으며 검은 윤곽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7인치 그레이 경량 알루미늄 합금 휠을 적용해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실내의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의 마감재는 내구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폴리올레핀(TPO)을 사용했으며 직물 소재의 스포츠 시트와 2-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장착해 간결한 매력을 더했다. 2-존 에어 컨디셔닝과 무선 충전 패드도 기본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HMM, 국내 첫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

9000TEU급 친환경 ‘그린호’ 인수

HMM은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

HMM 그린호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2023년 2월 HD현대상호(7척)와 HJ중공업(2척)에 발주한 9척의 선박 중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은 65% 이상, 황산화물은 100%, 질소산화물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

HMM은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으로 친환경 경쟁력을 강화했다. EU ETS(유럽 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 65% 이상

인 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소 발생량을 0으로 간주한다. 또 유럽의 해상연료 규제가 요구하는 2025년 감축 기준(전년 대비 2% 저감)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HMM은 HMM 그린호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9척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HMM 그린호는 HMM이 단독으로 운항하는 인도·지중해 항로 FIM에 투입된다.

HMM 관계자는 “암모니아, 수소 등 다양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 연구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친환경 경영을 지속 실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